



“투표하세요” 6·13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1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하철이용자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하철내부에 랩핑을 이용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한신협, 전국 지방선거 판세분석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지방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6·13 지방선거 관심 지역 판세를 공동으로 게재한다.

민주 우세 속 한국당 반전 ‘고심’

경기·인천

이재명·박남춘 독주... 네거티브 치열

경기도지사과 인천시장 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은 ‘활판’을, 자유한국당은 ‘고수’를 주장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막판 ‘네거티브 공방’이 불꽃을 튀기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반이 넘는 지지율 속에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두 배 가량 앞서며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 초반보다 격차가 좁혀진데다 막판 ‘김부선 스캔들’ 등이 지속되면서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이미 지지율 역전인 ‘물든코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선론이 굳건하고 지방권력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 이변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는 최근까지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독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 후보의 독주 속에서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바른미래당 문병호,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판세 뒤집기를 노리며 선거 현장을 누비고 있다. 경인일보가 (주)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5월 11일과 6월 6일 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각각 24.3%포인트, 21.3%포인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동층이 30%(경인일보 2차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인일보=김태성·김병호기자

부 산

오거돈 굳히기냐... 서병수 뒤집기냐

6·13 부산시장 선거의 막판 판세는 ‘굳히기냐, 뒤집기냐’로 요약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뚜렷한데다 평화비랍이 거세 대세는 이미 결정됐다”는 주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는 “1주일여 전부터 보수 결집이 시작됐으며 바다 민심은 이미 역전됐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오 후보가 서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오 후보는 49.9%의 지지율로 29.5%의 서 후보를 20.4%포인트(P) 앞서고 있었다. 바른미래당 이성권(3.5%), 정의당 박주미(1.4%), 무소속 이종혁(1.2%) 후보가 그 뒤를 이었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무응답이 14.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 서 후보 측은 10일 “지난 3일 서면유세에 이어 지난 9일 광복동 대규모 유세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여의도연 구원이나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어 막판 역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일보=서준영 기자

대 전

허태정 병역기피·장애 판정 변수

대전시장 선거는 남북 정상회담 등 중앙발 이슈와 여당 후보의 병역기피·장애등급 판정 의혹 등이 선거판을 잠식했다. 지역 현안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은 실종된 상태에서 시민들은 북한발 훈풍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 여당 후보에 제기된 의혹 등을 후보 선택의 지표로 삼았다. 주말 동안 대전 유권자들의 속내를 들은 결과 상당수가 정당을 보고 투표했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병역기피·장애등급 판정 의혹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지난 9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 박모(72)씨는 “국정 농단 사태로 보수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현재 대전시장 후보가 각종 발각과 장애등급 의혹에 휩싸여 있는 점도 고려해 투표했다”며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고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다. 10명에 2·3명은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였고, 나머지는 13일 투표하거나 투표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중구 선화동에 사는 권모(36)씨는 “당일에 투표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한국당을 신뢰할 수는 없다. 비례대표는 군소정당에 투표할 생각”이라며 부산투표를 예고했다. /대전일보=김달호 기자

6·13 선거현장

시장·군수 후보

원세도 “여수형 프로젝트학습 도입”



원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내년 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년제 도입에 대비해 지역실정에 맞는 ‘여수형 프로젝트학습’을 도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학교 때부터 진학과 취업 등 장애와 진로·직업 체험을 연계한 여수형 교육개발과 보급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고교생의 맞춤형 진로와 적성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다”며 “행복교육지원센터에는 입시전문가를 상주시켜 진학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석 “분기별 광장토론 정례화”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대의민주정치의 폐해 가운데 하나인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 분기별 1회씩 광장토론을 정례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허 후보는 “누구나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당 당선되고 나면 소통의 부재가 문제되곤 한다”면서 “시장에 당선되면 광장토론은 물론 정기적인 민심탐방을 통해 시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계각층 대표들과 작은 광장토론 방식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예총 회원 60여명이 선거사무실을 찾아 순천 예술발전회 대한 간담회를 했고, 농업인단체, 아파트자치회 등 직능단체들과 지역발전회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우철 “농축수산업 지속 발전전략 추진”



신우철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는 10일 완도읍장 유세에서 “수산업에 기반으로 농·축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신 후보를 지원했다. 신 후보는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역민 모두가 잘 사는 완도를 건설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해양헬스케어산업 선도,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신지명사십리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승완 “일자리 넘치는 보성 만들겠다”



하승완 무소속 보성군수 후보는 10일 “보성군 사전투표율이 35.43%를 기록,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32.39%)을 넘어섰다”며 “보성군민의 높은 정치참여와 지역정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 후보는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보성군수는 보성군과 보성군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위기의 보성군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군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넘치는 보성, 사람이 붐비고 넘치는 보성군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으로 보성군수를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보성군수 선거에서도 하승완을 선택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구충곤, 9가지 농업정책 실천 협약



구충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전국 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와 화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구 후보는 지난 9일 화순군농민회 사무실에서 백남수 화순군농민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 ‘농업공약 실천 협약식’을 하고, 9가지 농업정책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농민수당제 시행 및 수당 지급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시행 ▲화순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쌀 1kg 3,000원 및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 생산조정제 대체한 통일쌀 경작사업 추진 ▲농민헌법 제정 노력 ▲농지이용실태 조사 ▲화순군 쌀 생산비 조사 등을 담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단 “전경태 지지”



전경태 무소속 구례군수 후보 캠프는 “전국 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단이 지난 9일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전경태(사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에서 “이용훈 총회장을 비롯한 8명의 회장단은 구례 발전과 지역 경제를 일으킬 인물은 행정과 연륜이 풍부한 전경태 후보 뿐”이라며 “지지 선언과 함께 필승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전 후보와 전국 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30여년간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후보는 “멀리서 찾아와 지지선언을 해준 호남향우회 회장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구례발전을 위해서 꼭 당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북부 5개군 민주당 후보 ‘상생발전 협약’

곡성·담양·함평·영광·장성 군수 후보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도 동참

곡성·담양·함평·영광·장성 등 전남 북부권 5개군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들이 10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했다. 곡성 유근기, 담양 최형식, 함평 김성모, 영광 김준성, 장성 윤시석 군수후보들은 이날 협약식을 하고 당선되면 5개군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협약문을 통해 군사 및 보수 정권의 확대·정책·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남 북부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또 ▲상호 협력과 지원체제 구축 ▲5개군 상생발전협의체 구성해 공동발전 방안 연구·실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예산확보 공동 대응 ▲전남 북부 공동생활권 구축 노력 등 4개 공동 추진사항에 합의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도 이날 행사에 참석, 전남 북부권 상생발전 노력에 공감을 표시하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농협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